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 학교발전기금 1억원 기탁

“평생 재직한 대학에 대한 사랑의 표시”

박남기(왼쪽 두번째·사진) 전 광주교대 총장이 대학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했다.

광주교육대학교(총장 최도성)는 최근 학교에서 박남기 전 총장 대학발전기금 누적 총금액 1억원 기탁식을 열었다.

박 전 총장은 릴레이 장학금제도를 만들어 광주교대생의 장학금 수혜율이 전국 최상위권에 오르게 하는 등 광주교대가 100년의 역사를 완성하고,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초석을 놓는 역할을 한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 전 총장은 “평생 재직한 대학 및 학생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의 표시”라며 “광주교대가 새시대에 부합하는 최고 교원양성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총장은 재직시절 자매결연을 맺었던 아르헨티나 한국인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3000달러를 기부하는 등 다양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최도성 총장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광주



교대에 다년간 많은 금액의 대학발전기금을 기부해 주신데 대해 모든 교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발전기금은 광주교대에서 다양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명문 초등교원 양성대학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고려인 청소년 주체적 활동 위한 학술회의 성료



전남대 글로벌다문화포럼연구소(소장 김경화)는 최근 충남 아산 선문대학교에서 고려인 청소년의 주체적 활동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전남대 글로벌다문화포럼연구소 제공)

강진소방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진지부와 간담회



강진소방서는 음식점 후드·덕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진지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강진소방서 제공)

지스트 원우회, 발전기금 2000만원 기탁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기술경영아카데미(원장 김명중, GTMBA)가 최근 GTMBA 제12기 졸업식을 개최하고 제12기 원우회가 실시됨으로 모은 발전기금(2000만원) 기탁식을 진행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GTMBA 책임교수인 전창덕 연구원장을 비롯해 제12기 졸업생들과 지스트 보직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noon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졸업식에서는 총 29주에 걸쳐 최신 과학기술 및 글로벌 경영학 이슈 등 GTMBA의 커리큘럼을 이수한 총 47명에게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전달됐

다. 제12기 원우회장인 서인명(㈜금명하이텍 회장)에게는 지스트 총장상이 수여됐다.

서인명 제12기 원우회장은 “지스트가 지역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이공계 교육 연구기관으로 우뚝 서길 바라는 마음에서 원우들과 함께 발전기금을 기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GTMBA는 체계적인 CEO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비즈니스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최고 기술경영자과정을 개설한 후, 현재까지 약 480여명의 동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글로벌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말로 음악 소개... ‘국내 1호 DJ’ 최동욱씨 별세

‘국내 1호 DJ’ 최동욱(崔東旭·사진)씨가 17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 자택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7세.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6·25 전쟁 때 전주로 피난 가서 전주고를 졸업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이 동지다. 군 제대 후 복학생 때 종로 2가의 뮤직홀(음악감상실) ‘다체네’에 가서 “음악을 말로 소개하면 어떨겠느냐”고 제안했다. 당시

는 탄테이블에 레코드를 틀고 곡명은 흑판에 쓰거나 유리창에 앨범 재킷을 게시하던 시절이었다. ‘말로 음악을 소개’하는 계인기를 끝자 화산백화점 3층의 뮤직홀 ‘메트로’나 충무로의 ‘가네기’, ‘세시봉’에서도 고인을 불렀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공작지(재)	30 930 MBC 뉴스 5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빠이 좋아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동네 한 바퀴(재)	00 두뇌공조(재)	15 헬로키키 체육교실(재) 30 와썹 프리매직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이 맛에 산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레이닝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키 글로벌 동물 뉴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35 남도 지구그래피(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동심 세계공방 2(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시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연속 플러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구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1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50 최강 1교시
[7]	00 뉴스7 광주전남 30 특별생방송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질망에서 희망으로	50 태풍의 신부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공작지	30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두뇌공조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20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
[11]	30 KBS 뉴스라인	00 개는 훌륭하다		
[12]	10 사랑의 가족(재)	40 아이 러브 스포츠	10 스포츠 매거진 50 포비트앨리 시즌4	4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들레길(재)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미니특공대 브이레전즈
06:1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07:15 출동! 슈퍼윙스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9:30 한국의 들레길
07: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3:00 바닷가 사람들	19:50 인간과 바다(재)
08:00 디딩딩 유치원	13:50 EBS 다큐프라임(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로보가 폴리	14:45 한국의 들레길(재)	세제네의 피에스타 콜롬비아)
08:35 그린조끼 구조대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뒤죽박죽섬의 빅토패밀리(재)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봄이 오나 봄>
09:05 슈퍼두퍼 잉글리시(재)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큐프라임
09:20 빅 블루	16:15 패파 피그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9:35 타타와 쿠마	16:25 그린조끼 구조대(재)	23:5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40 디딩딩 유치원(재)	23:55 분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0일(음 2월 1일 己酉)

36년생 흑백 논리로 따질 일이 아님을 알자. 48년생 더불어서 행해도 전혀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60년생 즉시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좋다. 72년생 상대의 깊은 마음속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84년생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96년생 상대는 힌트만 주어도 쉽게 알아 들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0, 60	42년생 사려 깊게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54년생 굳은 신념으로 추진해야 풍성한 수확을 예상할 수 있다. 66년생 특별한 인연을 맺는 과정에 놓인다. 78년생 관리에 철저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허점을 날게 할 수 있다. 90년생 다 들고 나면 전모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02년생 과정에 충실한다면 득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46, 68
37년생 운 힘을 기울인다면 목표하여 왔던 바를 손에 넣을 수 있겠다. 49년생 실속이 있어 보이니 확실히 붙잡아라. 61년생 손발력 있는 대치가 절실한 때이다. 73년생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85년생 안박을 추구하려다가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97년생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 행운의 숫자 : 03, 73	43년생 어떻게 처세하느냐에 따라서 전망지치가 된다. 55년생 진실은 진실로만 통한다는 사실을 알자. 67년생 길조가 비호하고 있다. 79년생 불완전하다고 여긴다면 일단 실행하면서 체계를 잡아도 된다. 91년생 순서를 무시한다면 혼란에 빠진다. 03년생 일취월장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8, 78
38년생 세심하게 정리 정돈해야 할 때다. 50년생 핵심 사항의 확보를 위해 상호간에 이전투구하는 형상이다. 62년생 주변에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곳이 보인다. 74년생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86년생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98년생 지난 번의 형세가 다시 시작된다. 행운의 숫자 : 95, 66	44년생 예견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리라. 56년생 흐트러진다면 회의를 클 수밖에 없다. 68년생 절제한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느니라. 80년생 시기와 경중의 안배에 충실하는 것이 지혜롭다. 92년생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 04년생 집착은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6, 81
39년생 여건이 조성되면서 전체적으로 기여하는 판국에 이른다. 51년생 기쁨은 한 순간일 뿐인데 아쉬움은 많이 남으리라. 63년생 주체에 따라서 전망지치가 될 수도 있느니라. 75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87년생 여러 가지가 보일겠지만 일부만 유익할 뿐이다. 99년생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50	45년생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면 나서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 57년생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으니 지금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69년생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새롭게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다. 81년생 걱정스러워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93년생 입체적인 고찰이 효과적이다. 05년생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91
40년생 교제해 주어야만 새로운 국면을 열어 갈 수 있다. 52년생 일관된 면모와 지속적인 실행이 순조로움을 불러 올 것이다. 64년생 단독으로 행하지 말고 집합이와 함께 하도록 하자. 76년생 간절히 회귀한다면 얻을 수 있다. 88년생 힘들겠지만 결심만 많고 알할 것이다. 00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매끄러운 기저이다. 행운의 숫자 : 30, 87	34년생 대체로운 변화의 시도와 응용이 이롭다. 46년생 뜻이 확실하다면 기탄없이 추진하는 것이 낫다. 58년생 가까스로 수습한다고는 하지만 후유증이 오래 갈 수도 있다. 70년생 어려운 상황 뒤에 길사가 이어질 징조이다. 82년생 요건은 되지만 추진 동력이 약하다. 94년생 인내심을 발휘했을 때 성과를 거둔다. 행운의 숫자 : 09, 72
41년생 임시방편적이라면 무의미하다. 53년생 경계망동한다면 다 된 밥에 재 뿌린 격이 될 것이다. 65년생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자제에 분명하게 분리해 두는 것이 편하다. 77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이 따른다. 89년생 형식과 내용을 두루 살펴야 하느니라. 01년생 판세에 맞지 않는다 면 부작용만 수습한다. 행운의 숫자 : 08, 55	35년생 어려움은 경험의 밑천이 될 것이다. 47년생 욕심으로 밀어붙이는 아나니 절대로 집착할 필요는 없다. 59년생 지속적이라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71년생 판국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리라. 83년생 아차 하면 당하니 끝까지 방심하지 마라. 95년생 중용의 입장과 균형 잡힌 처세가 필수적이다. 행운의 숫자 : 47, 98